

<論 文>

Cr-Mo 鋼 熔接熱影響部의 熔接後熱處理 脆化에 관한 研究

林 載 奎* · 鄭 世 喜**

(1986 年 12 月 26 日 接受)

Study on PWHT Embrittlement of Weld HAZ in Cr-Mo Steel

Jae Kyoo Lim and Se Hi Chung

Key Words : PWHT Embrittlement(PWHT 취화), Fracture Toughness(파괴인성), PWHT Heating Rate(PWHT 가열속도), Residual Stress(잔류응력), Grain Boundary Failure(입자파괴)

Abstract

Post weld heat treatment (PWHT) of weldment of the low alloy Cr-Mo steel, in general, is carried out not only to remove residual stress and hydrogen existing in weldment but to improve fracture toughness of weld heat affected zone (HAZ). There occur some problems such as toughness decrement and stress relief cracking (SRC) in the coarse grained region of weld HAZ when PWHT is practiced.

Especially, embrittlement of structure directly relates to the mode of fracture and is appeared as the difference of fracture surface such as grain boundary failure.

Therefore, in this paper, the effect of heating rate on PWHT embrittlement under the various kinds of stresses simulated residual stress in weld HAZ was evaluated by COD fracture toughness test and observation of fracture surface.

Fracture toughness of weld HAZ decreased with increment of heating rate under no stress, but it was improved to increment of heating rate under the stress. Grain boundary failure didn't almost appear at the heating rate of 600°C/hr but it appeared from being the applied stress of 294 MPa at 220°C/hr and 196 MPa at 60°C/hr.

I. 序 論

高張力鋼을 使用한 熔接構造物의 不安定 脆性破壞로

인한 사고는 종종 경험하고 있으며 또 이가 미치는 영향이 지대하여 이를 파괴의 방지하는 현재 시급을 요하는 과제로 되고 있다. 불안정취성파괴 방지를 위해서 무엇보다도 필요로 하는 것은 破壞非性의 정확한 평가라 할 수 있다.

熔接熱影響部(heat affected zone: HAZ)의 非性에 영향을 미치는 因子中에서 殘留應力의 영향은 重大하

* 正會員, 全北大學校 工科大學 機械工學科

** 正會員, 全北大學校 工科大學 精密機械工學科

문제로 주목되고 있으며⁽¹⁾, 이로 인한 熔接材의 기계적 성질의低下를 경감하기 위한 方法으로 熔接後熱處理(post weld heat treatment: PWHT)에 依한 除去方法을 이용하고 있다. 그러나 이 热處理는 보통 600°C以上의 고온에서 實施되며 때문에 热處理過程에서 템퍼링(tempering)效果로 인한 HAZ의劣化가 때때로 發生하고 있어서 熔接 시공상 問題로 되고 있다^(2~4). 또한 PWHT 時에는 加熱中이나 冷却中에도 热處理效果가 進行되고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PWHT 加熱速度는 機械的性質의改善이라는理由外에 경제적側面에서도 重要時 된다. 특히 熔接組織의脆化는 破壞의 양식에 직접 반영되어, 破面形態의 差로 나타나므로, 본 연구에서는 熔接後熱處理에 의한 破壞非性值의劣化를組織의脆화와 관련시켜 검토하기 위하여 热處理된 HAZ를 대상으로 作用된 應力의 크기와 加熱速度가 HAZ의破壞非性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COD破壞非性試驗과 微小硬度測定, 그리고 주사전자현미경 관찰을 통하여 고찰하였다.

2. 試驗片 및 實驗方法

本 實驗에 使用된 試驗材는 板두께 16mm의 Cr-Mo鋼板(SCM440級)으로 그 化學成分 및 機械的性質은 Table 1과 같다. 鋼板은 Fig. 1과 같이 150mm×300mm 크기의 小板으로 切斷한 後 그 表面에 壓延方向과 直角方向으로 깊이 3mm의 90°V 흙을 機械加工하고 그 위에 서브머어지드아아크(submerged arc)自動熔接으로 一層熔接을 實施하였다. 이때 사용한 熔接條件은 Table 2와 같다.

熱處理試驗片은 길이方向의 鋼板의 壓延方向과一致하게 하였으며 마크로(marco)부식에 의해 兩端面의組織을 觀察하여 노치設定位置를 確認한 後 10×10×70mm 크기의 小板으로 切斷하였다.

Table 1 Chemical compositions and mechanical properties

(a) Chemical compositions (wt%)

C	Si	Mn	P	S	Cu	Ni	Cr	Mo
0.39	0.26	0.72	0.025	0.008	0.002	0.02	0.98	0.193

(b) Mechanical properties

Tensile strength (MPa)	Yield strength (MPa)	Elongation(%)
1020	655	19.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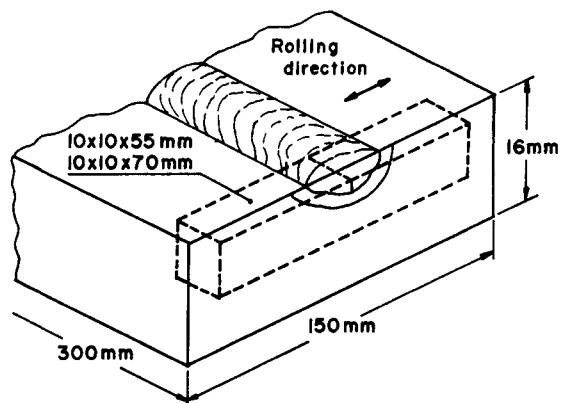


Fig. 1 Welding plate configuration and extraction of specimen

Table 2 Welding conditions(submerged arc welding)

Heat input (kJ/cm)	Pre-heating temperature (°C)	Current (A)	Voltage (V)	Welding speed (cm/min)	Wire (mm)
30	200	500	30	30	3.2

mm 크기로 加工하였다. 또 热處理된 시험편은 小型굴 힘 COD破壞非性試驗⁽⁵⁾을 위하여 10×10×55mm의 標準 Charpy試驗片으로 修正加工하였다. 노치加工은 ASTM規格 L-S형⁽⁶⁾으로 하였으며, 工學的破壞條件으로써 COD破壞非性試驗을 만족시키는 노치 acuity 범위인⁽⁷⁾ 두께 0.3mm의 원판 cut off wheel을 使用하여 板두께 方向으로 2mm 깊이의 슬릿加工을 하였다. 노치先端의 position은 熔接ビード의 中央部인 熔融線, 즉 熔接HAZ의 마르텐사이트粗大結晶組織에 位置하도록 하였다. 준비된 시험편은 热處理에 提供되었으며 热處理條件은 이材料의 適正後熱處理溫度로 알려진 650°C에서 노치先端에 잔류응력을 모의하여 98MPa(10kgf/mm²), 196MPa(20kgf/mm²), 294MPa(30kgf/mm²)의 一軸應力を 加한 狀態로 加熱速度를 600°C/hr, 220°C/hr, 60°C/hr의 세 가지 條件으로 변화시켰다. Fig. 2는 이때의 热處理條件를 개략적으로 圖示한 것이다. 热處理된 試驗片은 Charpy型 標準試驗片으로 再加工되어 小型굴 힘 COD破壞非性試驗에 提供되었으며 이때 使用된 시험기는 10吨 용량의 半自動시험기였다. 試驗溫度는 -175°C~25°C의 分위기 測定狀態였으며 크로스 헤드 speed는 0.2mm/min였다. 热處理와 應力集中으로 因한 材質의變化를 觀察하기 위하여 노치先端附近의 熔接HAZ에 注目하여 板두께 방향으로 每 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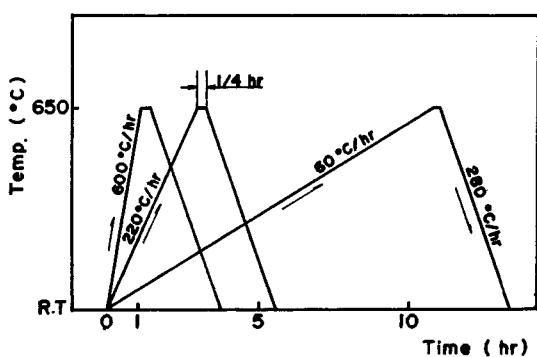


Fig. 2 Heat treatment conditions (heating rate)

μm 간격으로 硬度를 测定하였다. 이때 使用한 硬度計는 ビクス微小硬度計로 测定荷重은 100g 이었다. 破断試驗이 끝난 試驗片은 破断面에서 粒界破壊여부를 瞰察하기 위하여 주사전자현미경으로 面觀察을 하였다.

3. 實驗結果 및 考察

3.1 低溫破壊靶性

Fig. 3은 各種 热處理 시험편에 대한 低溫破壊靶性試驗을 實施한 結果를 試驗溫度와 限界開口變形量 δ_c 의 관계로 整理한 것이다. 各種 條件으로 热處理된 시

험편의 δ_c -溫度依存曲線이 모두 as-weld材의 그것보다 低溫側에 位置하고 있어서 熔接HAZ의 破壊靶性은 PWHT에 依해서 改善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이 線圖에서 COD遷移曲線은 加熱速度뿐만 아니라 作用應力의 大小에 따라서 改善의 程度를 달리하고 있음을 엿볼 수가 있다. 따라서 이들 線圖로 부터 各 試驗片에 대한 延脆性遷移溫度 [$(T_{tr})_{\delta_c} = 0.25$]⁽⁸⁾를 求하고 作用應力下에서 加熱速度가 HAZ의 靶性을 어떻게 變化시키는가를 살펴보기 위하여 $\sigma = 0 \text{ MPa}$ 즉 無應力狀態를 기준으로 하여 各 處理條件에 對應하는 T_{tr} 값과 無應力 때의 T_{tr} 값과의 差 (ΔT_{tr}) $_{\sigma=0}$ 를 求하여 各 加熱速度別로 整理해 보면 Fig. 4와 같다. 이를 보면 加熱速度가 가장 빠른 600°C/hr의 경우 T_{tr} 값이 無應力 일 때의 T_{tr} 에 比하여 $\sigma = 98 \text{ MPa}$ 일 때 약 20°C $\sigma = 196 \text{ MPa}$ 와 $\sigma = 294 \text{ MPa}$ 에서 각각 46°, 52°C 만큼 低溫 쪽으로 移動하고 있다. 그러나 이보다 加熱速度가 느린 220°C/hr의 경우를 보면 이와는 반대로 應力이 作用될 때의 T_{tr} 값은 모두 無應力일 때에 比하여 高溫 쪽으로 移動하고 있어서 이 加熱速度에서의 PWHT는 HAZ組織을 脆化시키고 있음을 엿볼 수 있다. 한편 60°C/hr의 대단히 느린 加熱速度에서의 T_{tr} 값은 應力이 98 MPa 일 때는 無應力일 때 보다 低下되어 熔接HAZ組織을 改善시키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이런 현상은 60°C/hr의 아주 느린 加熱速度 때문에 殘留應力에 依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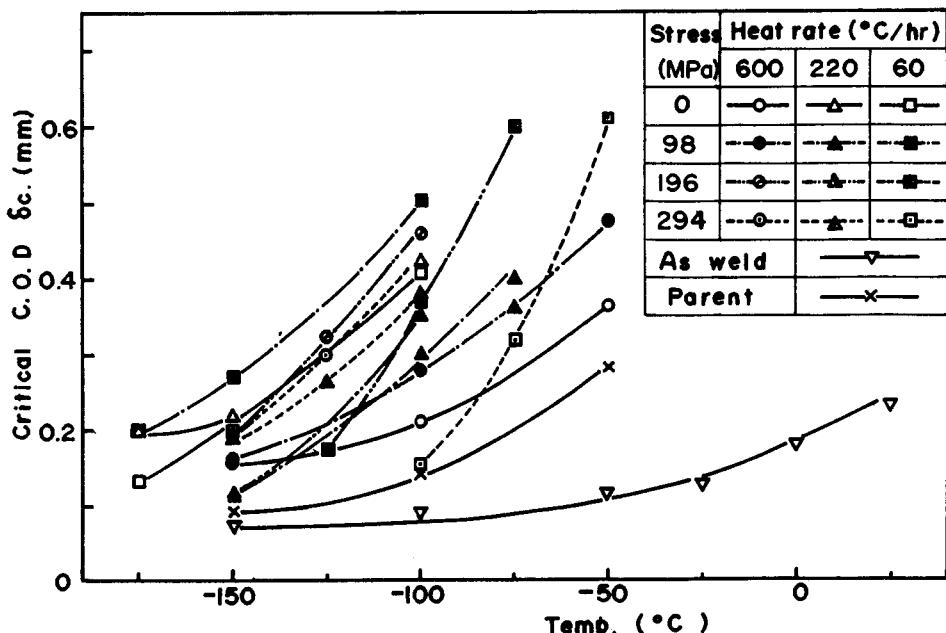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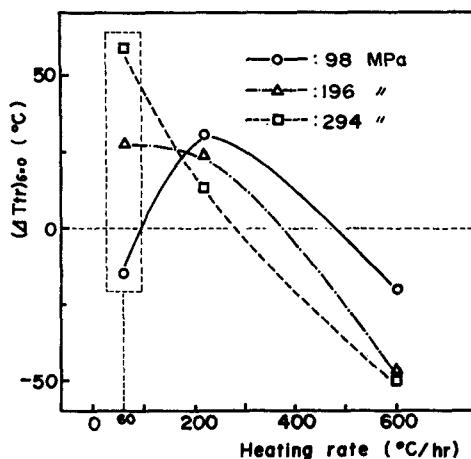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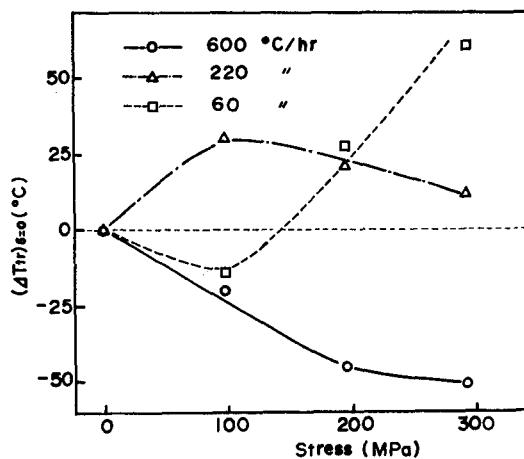


Fig. 3 Relation between critical COD and test temperature for heating rate (PWHT conditions : 650°C, 1/4hr)

Fig. 4 Relation between $(\Delta T_{tr})_{\sigma=0}$ and heating rateFig. 5 Relation between $(\Delta T_{tr})_{\sigma=0}$ and applied stress

脆化現象이 热處理에 依해 改善되고 있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으며 점차 作用應力이 196MPa, 294MPa로 增加하면 組織을 脆化시킬뿐만 아니라 應力의 크기에 따라 脆化의 程度가 커지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이를 다시 정리하면 600°C/hr의 빠른 加熱速度에서는 作用應力의 增加에 따라 韌性이 向上되고 있으며 220°C/hr 까지는同一한 脆化勾配를 갖고 脆化되나 220°C/hr를 경계로 98MPa에서는 다시 向上되고 196MPa, 294MPa의 경우는 포화되거나 더욱 脆化되고 있음을 볼 수가 있다. 여기서 60°C/hr는 作用하는 殘留應力에 의해 組織이 일단 脆化되고는 있으나 아주 느린 加熱速度이므로 전체적인 PWHT 時間이 긴어 사실상 PWHT 도중에 이 應力의 效果보다는 再結晶等의 热處理效果가 더욱 크게 나타나서 韌性은 向上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上의 관찰에서 알 수 있는 것은 PWHT된 HAZ 組織의 破壞韌性值는 組織固有의 破壞韌性和 加熱速度 및 殘留應力에 依해서 左右된 破壞韌性值의 復合의 값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다. 이러한 뜻에서 加熱速度와 殘留應力만의 영향을 살펴보면 Fig. 5와 같다. 이 그림은 無應力下에 있을 때의 T_{tr} 을 기준으로 하여 각 點에서의 각 加熱速度에 대한 T_{tr} 의 差 $(\Delta T_{tr})_{\sigma=0}$ 를 구하여 作用된 應力에 관하여 정리한 것이다. 이를 보면 600°C/hr의 경우는 應力의 作用에 依存하기는 하나 $(\Delta T_{tr})_{\sigma=0}$ 의 값이 전부 (-)쪽에 位置하고 있어서 이 加熱速度로의 热處理는 HAZ 組織에 作用되고 있는 應力이 組織의 破壞韌性을 向上시키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加熱速度가 220°C/hr로 느려진 경우는 組織固有의 破壞韌性은 크게 向上하는 데도 불구하고

應力이 作用된 狀態에서는 $(\Delta T_{tr})_{\sigma=0}$ 이 전부 高溫쪽으로 位置하고 있어서 이 加熱速度는 HAZ 組織을 脆化시키는 speed임을 알 수가 있다. 특히 $\sigma=98$ MPa인 경우가 그 영향이 가장 크며 應力이 增大됨에 따라 약간씩 韌性이改善되고 있다. 또한 加熱速度가 60°C/hr일 때는 破壞韌性的改善 및 熔接 HAZ 組織의 脆化度가 作用應力에 따라 크게 左右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sigma=98$ MPa일 때는 $(\Delta T_{tr})_{\sigma=0}$ 이 -15°C 로써 韌性이改善되었다. 이는 느린 加熱過程中에 完全풀립현상이 강하게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러나 作用應力이 196MPa, 294MPa로 增加함에 따라 ΔT_{tr} 이 각각 $+28^{\circ}\text{C}$, $+60^{\circ}\text{C}$ 로 上昇한 것은 熔接 HAZ의 殘留應力에 依한 脆化現象이 强하게 나타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이것은 단순한 組織의 热處理現象보다는 殘留應力의 영향이 더욱 크게 나타나는 加熱速度임을 나타내 준다. 이러한 現象을 PWHT 脆化現象이라고 볼 때 이는 冷却速度뿐만이 아니고 加熱速度 및 作用된 殘留應力의 크기에도 영향을 받는 것이라 할 수 있다.

3.2 微小硬度와 破壞韌性

加熱速度와 作用應力を 변화시키면서 PWHT 했을 때 노치先端에서 組織의 變化를 알아보기 위하여 微小硬度를 測定하였다. Fig. 6은 그 測定值의 一例를 例示한 것으로 그 값에 차이는 있으나 모든 조건하에서 硬度值는 溶融線에 隣接한 粗大結晶粒에서 가장 높으며 어느거리까지는 그 값이 一定值得를 이루나漸次低下되어 母材의 硬度值과 같아지고 있다. 또한 無應力下에서 硬度變化와 韌性의 舉動變化를 갖는 HAZ 組織에 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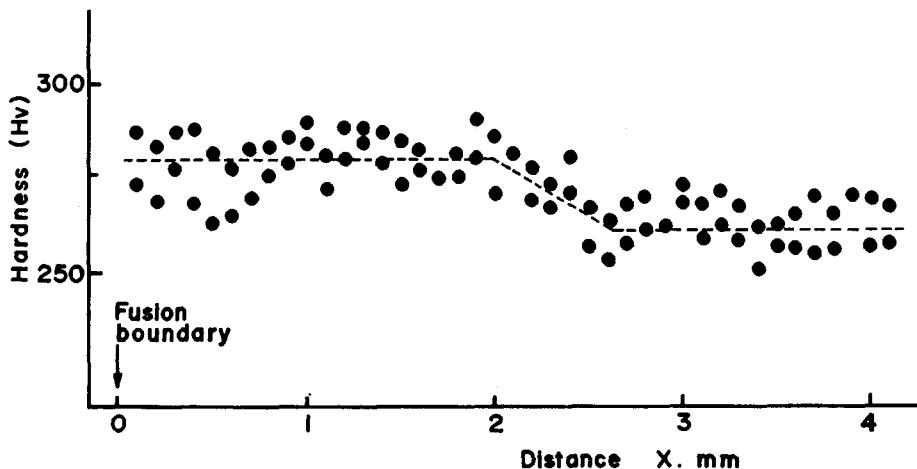


Fig. 6 Hardness distribution in HAZ after PWHT (heat input : 30 KJ/cm, applied stress : 98MPa, PWHT conditions : 650°C, 220°C/hr, 1/4h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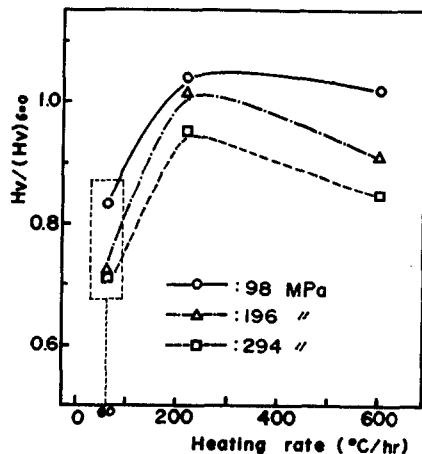


Fig. 7 Relation between $H_v/(H_v)_{\sigma=0}$ and heating rate for applied stress

力이 작용되면 PWHT에 의해서 어떠한硬度變化를 갖는지를 살펴보면 Fig. 7과 같다. 이線圖는無應力 때의硬度를 기준으로 한硬度比 $H_v/(H_v)_{\sigma=0}$ 을 구하여 각作用應力別로 加熱速度에 關해서 整理한 것이다. 이를 보면 加熱速度 600°C/hr 일 때 作用應力이 98MPa 가 되면 無應力일 때 보다 약간硬化工된 반하여 196 MPa, 294MPa의 作用應力下에서는 오히려軟化되고 있으며 應力이 커짐에 따라軟化의 程度는 더 커지고 있다. 이와 같은舉動을 갖는硬度比는 加熱速度의 低下와 더불어 220°C/hr의 加熱速度까지는 약간씩 증가함을 보이다가 速度가 아주 느린 60°C/hr에서는 급격한軟化를 보이고 있다. 지금까지의 加熱速度와 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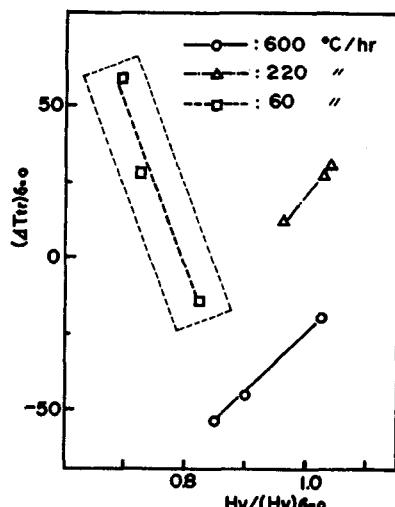


Fig. 8 Relation between $(\Delta T_{tr})_{\sigma=0}$ and $H_v/(H_v)_{\sigma=1}$ for heating rate

用應力에 依한 T_{tr} 과硬度의變化경향을 알아보기 위하여無應力狀態을 기준으로 한遷移溫度의 差 $(\Delta T_{tr})_{\sigma=1}$ 과 HAZ組織의變化를 나타내주는硬度比와의 관계를 Fig. 8에 나타낸다. 여기에서 加熱速度 600°C/hr에서는硬度比가 증가할수록 $(\Delta T_{tr})_{\sigma=0}$ 은高溫測으로 移動하고 있어韌性劣化를 알 수 있다. 220°C/hr의 加熱速度 역시硬度比의 증가와 함께韌性劣화의 程度가 커지고 있다. 그러나加熱速度가 아주 늦은 60°C/hr의 경우는 600°C/hr와 220°C/hr의韌性變化度와는 달리硬度比가 低下하는에도 韌性의劣化가 급진적으로

增加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가열속도가 높어짐에 따라 硬度比와 $(\Delta T_{cr})_{\sigma=0}$ 의 線型의인 관계가 그程度를 달리하고 있으며 기울기가 점점 증대되어 60°C/hr에서는 負의 기울기를 나타내고 있다. 이것은 Cr, Mo 따위의 2次硬化元素가 첨가되었기 때문에 PWHT 과정에 이런 2次元素의 時效析出로⁽⁹⁾ 粒界가 脆화되어 韌性의 低下를 가져온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60°C/hr의 加熱速度로 PWHT 한 것은 硬度比가 低下하는 데도 遷移溫度의 差 $(\Delta T_{cr})_{\sigma=0}$ 이 고온측으로 移動하고 있어 韌性이 低下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이와 같이 아주 느린 加熱速度에서 PWHT 하는 것은 後述하는 바와 같이 긴 熟處理時間으로 因하여 加熱中에 不純物이나 炭化物들의 粒界析出을 誘發하여 熔接 HAZ가 脆化되기 때문에 PWHT 조건으로 적합하지 않다.

3.3 破面觀察

熔接後熱處理條件이 破壞舉動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시험온도 -100°C의 試片破面을 주사전자현미경(SEM)으로 관찰하였다. Fig. 9는 作用應力 0 MPa의 條件下에서 加熱速度를 變化시킨 노치先端의 破面사진이다. (a)는 600°C/hr의 가열속도로서 전체적으로 벽개파면만이 존재한다. (b), (c)는 220°C/hr, 와 60°C/hr로서 노치先端에 스트레치존이 있으며 미세한 덤플로 이루어진 延性破面을 나타내고 있다. 특히 (c)에서는 가열속도가 높어서 열처리시간

이 많아지므로 덤플바닥에 미세한 析出物들을 관찰할 수가 있으며, COD 韌性試驗結果와도一致하고 있다. Fig. 10은 作用應力 98MPa의 破面사진으로 600°C/hr와 220°C/hr에서는 약간의 延性破面이 존재하는 壁開破面으로 되어 있다. 그러나 가열속도가 가장 느린 60°C/hr에서는 노치先端에 스트레치존이 100μm 정도存在하고 나머지는 擬壁開破面을 포함한 壁開破面으로 되어 있다. 특히 가열속도가 높어짐에 따라 空洞(void)의 성장을 확인할 수 있다. Fig. 11는 作用應力이 196 MPa인 경우로 가열속도가 600°C/hr에서는 노치先端에 延性破面과 약간의 壁開破面을 관찰할 수 있다. 특히 이破面은 98MPa, 220°C/hr의 破面과 비슷하여 作用應力과 加熱速度는 노치先端의 破壞韌性에 크게 관련이 있음을 알 수 있다. 220°C/hr에서는 대부분의 破面이 延性破面이며 析出物들의 移動을 관찰할 수 있어서 이러한 析出物들이 粒內에 存在하므로 韌性를 低下시키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 60°C/hr의 가열속도에서는 노치先端에서 일부의 粒界破面을 볼 수 있으며 粒界的 밀바닥에 微細한 덤플이 있어 韌性를 조금은 회복시켜 주고 있다. Fig. 12는 作用應力이 294MPa인 경우로 加熱速度 600°C/hr에서는 延性破面이 대부분이며 미세한 덤플이 結晶境界에 存在하고 있어 破壞韌性를 增加시키고 있다. 加熱速度가 너무 빠르므로 作用應力의 效果가 크게 나타나지 않으나 粒界에 空洞의 형성이 진행되고 있음을 관찰할 수 있다. 220°C/hr에서는 노치先端에 粒界破面을 뚜렷이 관찰할 수 있는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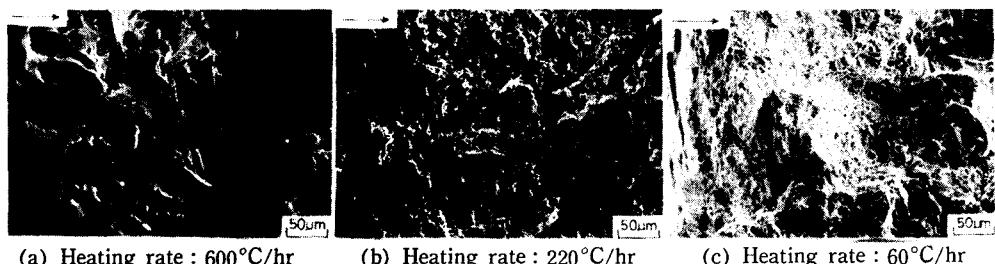


Fig. 9 Difference of fracture surfaces for heating rate during PWHT (stress : 0 MP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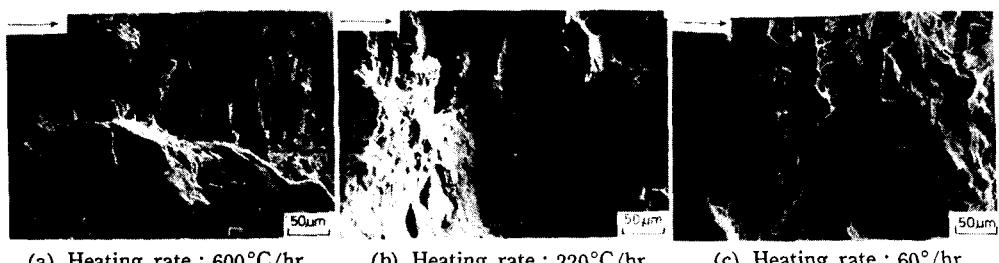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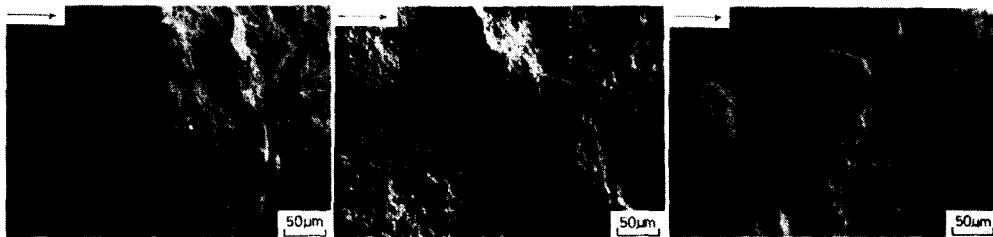


Fig. 10 Difference of fracture surfaces for heating rate during PWHT (stress : 98 MPa)



(a) Heating rate : 600°C/hr (b) Heating rate : 220°C/hr (c) Heating rate : 60°C/hr

Fig. 11 Difference of fracture surfaces for heating rate during PWHT (stress : 196MPa)



(a) Heating rate : 60°C/hr (b) Heating rate : 220°C/hr (c) Heating rate : 60°C/hr

Fig. 12 Differnce of fracture surfaces for heating rate during PWHT (stress : 294MPa)

이는作用應力에 의한析出物들의粒界移動을 나타내주고 있다. 그리고 60°C/hr의加熱速度에서는作用應力 294MPa에 의하여析出物들이粒界로移動하여서全般的으로粒界破壞를 일으키고 있다. 또한作用應力에 의한析出物들의移動으로粒界析出物들의層은應力과PWHT時間의 경과에 따라層두께가增加되어 이에따라본드의結合力이減少되고 있음을韌性시험에서確認할 수 있었다. 위와 같은結果로부터加熱速度에依한韌性的變化가크게나타나며殘留應力이析

出物들의驅動力이되고析出量은 열처리加熱時間에 의해영향을받고있다. 그러므로加熱速度와應力의變化에따른破斷面의舉動을종합적으로평가하면Table 3와같이600°C/hr에서는加熱速度가너무빠르므로作用應力에依한組織變化가그렇게크지않을뿐만아니라格子缺陷들의分散과組織의軟化만을增大시키므로,粒界破壞는거의나타나지않는다. 그러나220°C/hr에서는294MPa의殘留應力이存在할때나타나며, 60°C/hr에서는196MPa의殘留應力이存在할때부터粒界破壞를일으킨다.

Table 3 Evaluation of fracture surface due to the change of heating rate

Heating rate Stress	600°C/hr	220°C/hr	60°C/hr
0 MPa	X	X	X
98 MPa	X	X	M
196 MPa	X	M	O
294 MPa	M	O	O

X : Nothing grain boundary failure

M : Mixed grain boundary failure and dimple

O : Grain boundary failure

4. 結論

PWHT된Cr-Mo鋼熔接HAZ를대상으로小型缺口COD破壞韌性試驗과전자현미경판찰을통하여PWHT시에作用된應力과加熱速度가HAZ粗大組織의破壞韌性에어떠한영향을미치는가를檢討하였으며얻어진結果는다음과같다.

(1)熔接HAZ組織의破壞韌性은PWHT에依해서改善되나應力이作用된狀態에서熱處理되면韌性은劣화된다.

(2)HAZ의破壞韌性은加熱速度에依存되고있으며

無應力下에서는 加熱速度가 빨라짐에 따라 韌性은 低下하고 있으나 應力이 作用된 경우는 加熱速度가 빨라지면 韌性은 向上되고 있다.

(3) 加熱速度에 依한 粒界破壞는 $600^{\circ}\text{C}/\text{hr}$ 에서는 거의 나타나지 않으며, $220^{\circ}\text{C}/\text{hr}$ 에서는 294MPa 의 殘留應力이 存在할 때, $60^{\circ}\text{C}/\text{hr}$ 에서는 196MPa 의 殘留應力이 存在할 때부터 나타난다.

(4) 熔接 HAZ에 各種 應力を 作用시켜주면서 PWHT를 實施하는 경우에 HAZ의 破壞韌性을 低下시키는데 이는 作用된 應力이 組織中에 過固溶된 合金元素의 粒內 또는 粒界析出을 돋기 때문이다.

참 고 문 헌

- (1) 田中, 小幡, “應力除去燒鈍に關する研究(1~8報)”, 日本溶接學會誌, Vol. 36, No. 2, 1967, ~Vol. 39, No. 11, 1970
- (2) R.M. Horn and R.O. Ritchie, “Mechanism of Tempered Martensite Embrittlement in Low Alloy

- Steel”, Met Trans. A., Vol. 9A, p. 1039, 1978
- (3) J.C. Murza and C.J. McMahon Jr, “The Effect of Composition and Microstructure on Temper Embrittlement in $2\frac{1}{4}$ Cr-1Mo Steel”, ASME, Vol. 102, pp. 369~375, 1980
- (4) A. Joshi and D.F. Stein, “Temper Embrittlement of Low Alloy Steels”, STP, 499, pp. 59~89, 1972
- (5) B.S. “Method for Crack Opening Displacement (COD) Testing”, BS5762, 1979
- (6) ASTM Standard E399
- (7) 豊貞, “曲げCOD試験片におけるNotch Acuity 効果の定量化に關する提案”, 日本造船學會論文集, 第143號, p. 427, 1978
- (8) 정세희, 임재규, “Cr-Mo 鋼 熔接熱影響部의 破壞韌性에 미치는 熔接後熱處理의 影響(I)”, 大韓機械學會論文集, 第8卷, 第2號, pp. 97~103, 1984
- (9) 伊藤, 中西, “低合金鋼熔接熱影響部の 應力除去燒鈍割れの研究(第1報)”, 日本溶接學會誌, Vol. 40, p. 1261, 1971